

# 경남일보

HOME > 사회 > 사회종합

## 합천군, 황강직강공사 본격 시동

김상홍 | 승인 2018.08.27 14:22

합천군이 문준희 합천군수의 주요공약인 황강직강공사의 구체화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27일 합천군에 따르면 황강직강공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최근 기획감사실에 계장 1명을 포함한 총 4명을 황강개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이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추경예산안 6억원을 오는 9월 3일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황강직강공사는 국가하천 황강의 직선화 공사를 추진하는 대형공사로 합천대교에서 영전교를 잇는 길이 8.7km 기존 반원형태 구간을 4.4km구간으로 직선화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황강을 합천대교와 영전교 지점까지 직선화를 만들어 생기는 임북·문림지구 330㎡와 폐천 230㎡ 등 총 560㎡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당 부지는 국제복합도시, 골프장 등을 조성해 인구증가와 고용 창출을 한다는게 합천군의 구상이다.

문준희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후보자시절 대표 공약으로 황강직강공사를 통해 인구증대 1만명과 생산유발 효과 1조3000억원을 거둘수 있으며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황강직강공사는 지난 1966년 처음 사업이 거론됐으며 이후 1994년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돼 합천댐 하류직강화 및 정양호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됐다. 당시 건설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받고 (주)대우의 투자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전면 무

산됐다.

2005년에도 한 차례 더 황강기본계획안 고시됐으나 황강직강은 제외되기도 했다.

합천군은 지난 1997년에 만든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교량 2개소, 소수력 발전소 1개소,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 등 사업비가 4025억원이 투입되는 등 사업 기본안을 준비했다.

정인룡 합천군 기획감사시실장은 “먼저 황강직강공사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용역을 의뢰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되더라도 국가하천인만큼 관계부처 등과 향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사진설명

황강직강공사 위치도 (빨간 점선이 황강직강공사로 개발되는 총 560m<sup>2</sup>의 면적)

사진제공 = 합천군

저작권자 © 경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홍